

GK 김승규 첫 도움쇼...이적생 반란 심상찮네

(울산)

경남 제리치 이적 후 2경기 연속골 수원 새 외인 안토니스 데뷔전 도움 성남 박원재·인천 김호남도 '골맛'



K리그 이적시장이 7월 26일로 마감된 가운데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이 '하나원큐 K리그1 2019'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달 30일 펼쳐진 K리그1 23라운드 경기에서 이적시장을 통해 유니폼을 갈아입은 김승규(울산 현대), 제리치(경남FC), 박원재(성남FC) 등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등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K리그1은 스플릿 라운드 이전까지 팀 당 10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적생의 활약이 리그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울산은 23라운드 서울전에서 골키퍼 김승규가 눈부신 선방쇼를 펼치진 않았지만 그의 합류로 공격 빌드업이 한층 나아졌음을 드러냈다. 김승규는 빌드업 과정에서의 짧은 패스뿐 아니라 정확한 롱 킱을 통해 팀의 역습 속도를 끌어올렸다. 울산이 서울전에서 기록한 3번째 골은 김승규의 롱 킱에서 비롯됐다. 상대 골키퍼의 실수가 동반됐지만 김승규는 생애 처음으로 어시스트까지 올렸다. 선두경쟁을 하는 울산은 축구국가대표팀 주전골키퍼로 활약하는 김승규의 합류로 수비뿐 아니라 공격 작업에서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규는 "빌드-업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님과 울산 김도훈 감독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강원FC를 떠나 경남에 새 동지를 둔 제리치도 눈여겨 봐야 한다. 경남은 올 시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 K리그1이 이적생의 활약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여름이적시장에서 친정팀 울산 현대로 복귀한 골키퍼 김승규는 지난 달 30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FC서울전에서 복귀전을 가졌다. 1실점했지만 생애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팀의 3-1 승리에 일조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경남 제리치

성남 박원재

즌 외국인선수들의 부진과 연이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다. 결국 어렵게 뽑았던 조던 머치와 계약을 해지한 뒤 강원 공격수 제리치는 영입했다. 제리치는 팀은 옮긴 이후 2경기에서 연속골을 터트리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강원에서 포지션 중복 등으로 지난해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제리치에게 이번 이적이 반등의 계기가 됐다. 경남이 아직 하위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제리치가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아준다면 강등권을 탈출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북 현대를 떠나 성남 유니폼을 입은 박원재는 이적 후 2경기 출전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에 귀중한 1승을 안겼다. 성남은 박원재의 골에 힘입어 상주 상무를 1-0으로 꺾고, 시즌 2번째 2승을 기록하며 상위(1~6위) 스플릿 진출의 꿈을 이어가게 됐다. 득점력에 고민이 많았던 성남에게 박원재는 귀중한 자원이다.

이들 뿐 아니라 수원 삼성의 새로운 외국인선수 안토니스는 데뷔전이었던 23라운드 대구FC와의 원정에서 1개의 도움을 올렸다.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김호남은 23라운드 경남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책임졌다. 전북의 김승태 또한 데뷔전이었던 20일 서울과의 경기에서 골맛을 보며 빠른 적응력을 선보였다. 이적생들이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용석 기자 tyong@donga.com

콤팩트 뉴스

KFA, 오늘 천안시와 부지선정 협약식

대한축구협회가 1일 천안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협약식을 연다. 대한축구협회는 5월 축구종합센터 부지 우선협상 대상으로 천안시를 1순위로 선정했고, 천안시의회는 7월 31일 제224회 임시회의를 열어 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시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됐고, 전체 시의원 25명 중 찬성 16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축구종합센터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천안시 가산리 일대에 47만 800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구본영 천안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지희, 실업탁구 챔피언전 단식 우승

전지희(27·포스코에너지)가 7월 31일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2019실업탁구챔피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전지희는 유은종(26·미래에셋대우)과 맞붙은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트스코어 3-2(11-8 7-11 5-11 11-6 11-9)로 승리를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3세트까지 1-2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4세트와 5세트를 내리 잡아내 역전승을 완성시켰다. 5월 중별 선수권에서 단식과 복식, 단체전을 모두 휩쓸었던 전지희는 지난해 대구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하면서 실업랭킹 1위다운 기량을 보였다.

타이틀리스트 T-시리즈 사전 이벤트



타이틀리스트가 T-시리즈 아이언의 본격적인 국내 출시를 앞두고 일반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를 먼저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이벤트 'T-Series, Titleist Fitting Road Trip'을 진행한다.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요 연습장 10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타이틀리스트 공식 홈페이지 내 '스페셜 피팅 데이' 페이지에서 신청한 고객들이 T-시리즈 아이언과 620 CB/MB 아이언, 하이브리드 제품을 시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또한 12일부터 타이틀리스트 클럽 공식 판매 대리점을 통해 T-시리즈 아이언을 사전 구매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관련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T-시리즈 아이언은 30일 국내에서 정식 출시된다.

성남 상승세 이끄는 남기일 감독 "고생한 제자들 더 잘되길"

팀 살림 빠듯...과감한 리빌딩 포기 기존 선수들 활약으로 중위권 발판

"지금 친구들이 계속 잘해줬으면 더 좋겠다."

여름이적시장을 바라보던 K리그1 성남 FC 남기일 감독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조금만 더 치고 올라가면 확실히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물론 좋은 선수들이 핵심이다. 둔 걱정 없이 과감한 리빌딩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빠듯한 살림살이의 시민국단은 큰 폭의 변화를 주기 어렵다.

마음을 비웠다. 육살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대신 기존 자원들을 최대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바람

은 분명했다. "K리그2에서부터 고생한 선수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계속 성장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한다."

성남의 축구는 끈끈하다. 화려함은 없어 도 무기력하지 않다. 쉽게 패하는 법이 없다. 어느 상대와 만나도 꾸역꾸역 성과를 내면서 일정 순위를 유지해왔다. 5위 이상은 올라가지는 못해도 최하위권(11~12위)에서 생존다툼을 벌인 적은 없다.

성남은 지난 달 30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상주 상무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23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터진 박원재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21일 수원 삼성을 2-1로 꺾은 데 이어 2연승을 달린 성남은 7승6무10패(승점 27)를 쌓으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상위 스플릿 진출 마지노선인 6위 수원

(승점 32)과 격차는 5점에 불과하다.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거리다.

K리그2에서 상위권을 지키고, 승격의 기쁨을 만끽해본 선수단이 무더위에서도 힘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전에 이어 상주전에서 결승골을 연속 어시스트한 최병찬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K리그2에서 성남 유니폼을 입고 5골·2도움을 올린 그는 올 시즌 13경기에서 1골·2도움을 기록 중이다.

다행히 이적시장도 빈손으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상주전 결승골 주인공 박원재를 전북 현대에서 임대했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다용도 공격수 이은범을 영입했다. 짠물수비를 더욱 단단하게, 2% 아쉽던 화력을 더 강하게 만들 재목들이다. 은밀하지만 위대한 반란을 노리는 성남의 도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기일 감독

권창훈 또 부상...분데스리가 데뷔전 미뤄지나

친선경기 중 종아리 통증 호소 근육 파열...3~4주 결장 전망

권창훈(25·프라이부르크)이 다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기다리던 분데스리가 데뷔전도 다소 미뤄지게 됐다.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는 7월 31(한국시간) "권창훈이 27일 오스트리아 슈룬스에서 열린 카이세리슬포르프(터키)와 친선경기 도중 종아리 근육 파열 부상을 입었다. 경

기 도중 교체된 권창훈은 약 3~4주 정도 결장할 전망이다"고 보도했다.

이번 부상으로 권창훈은 분데스리가 데뷔전 출격이 늦춰지게 됐다. 프라이부르크는 8월 10일 3부 리그 마그데부르크와 2019~2020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로 새 시즌을 시작한다. 17일에는 홈구장에서 마인츠와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벌인다. 최소 3주 재활 진단을 받은 권창훈은 두 경기 모두 출전이 어려워졌다.

권창훈은 지난해 5월부터 부상이 이어



권창훈

져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가장 큰 시련은 프랑스 리그앙 디종 소속이던 2017~2018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당한 오른쪽 아킬레스건 파열이었다.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재활이 필요했다. 그로 인해 2018 러시아월드컵과 2019 아시아축구연맹(AF

C) 아시안컵에 모두 나서지 못했다. 2018~2019시즌 막판 어렵게 복귀했지만 올해 5월 말 리그앙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목뼈를 다쳤다. 6월 A매치 시리즈에서 대표팀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부상으로 제외됐다.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2018~2019시즌을 대부분 건너뛴 권창훈은 6월 프라이부르크와 2년 계약을 맺고 분데스리가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같은 시기 프라이부르크 유니폼을 입은 정우영(20)과 함께 몸을 만들면서 새 시즌을 준비했지만, 또 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혀 정상적인 시즌 개막이 불가능해졌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